

베네수엘라의 국민소환 투표 결과와 향후 전망

□ 차베스 대통령 국민소환 투표 승리

- 8월 15일(현지시간) 실시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 투표가 사실상 부결됨.
- 베네수엘라 중앙선관위장 프란시스코 까라스게로는 94%가 개표된 현재, 차베스 대통령이 58% 대 42%로 승리하였다고 밝힘.
- 이번 국민소환 투표는 차베스 대통령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으로 인한 민심이반과 급진적 개혁정책을 둘러싼 기득권층과 빈민층간의 대립에서 비롯되었으며, 이에 따른 베네수엘라의 정국불안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한 원인으로도 작용해 왔음.
- 차베스 지지파와 반대파간의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었던 국민소환 투표가 차베스 지지파의 승리로 끝남에 따라 향후 차베스 정권의 권력기반이 강화되고,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되찾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평가됨.

□ 국민소환 투표의 배경

- 이번 국민소환 투표는 1998년 차베스의 대통령 당선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차베스 지지파와 반대파간의 극심한 대립에서 비롯된 것임.

- 차베스 대통령은 1998년 대선에서 빈민층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이후 입법개혁, 사법개혁, 행정개혁, 농지개혁, 무상교육 확대 등 부패척결과 빈민구제를 위한 급진적 사회주의 성향의 개혁정책을 추진해 왔음.
- 이 같은 급진적 개혁정책에 대한 기득권층의 반발로 2002년 4월에는 차베스 반대파 주도의 쿠데타가 발생하기도 하였고, 12월에는 63일간 지속된 총파업이 발생하여 석유생산이 중단되는 등 베네수엘라 경제가 마비되기도 함.
- 총파업 종결 이후에도 차베스 반대파는 대통령 불신임 국민소환 투표 실시를 위한 서명 운동을 전개하였고, 그 결과 이번 소환투표가 실시된 것임.
- 차베스는 이번 선거에서 "No"에 투표하는 것이 자본주의, 신자유주의, 불의, 배고픔, 빈곤에 항거하는 혁명을 지지하는 한 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고,
- 차베스 반대파의 지도자인 엔리케 멘도사는 이번 선거에서 "Yes"에 투표하는 것이 진보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함.
- 연초만 하더라도 장기 경기침체로 인한 차베스의 지지율 하락 등으로 이번 국민소환 투표에서 차베스의 패배가 예상되기도 하였으나,
- 국제유가의 상승에 힘입어 베네수엘라 경제가 급속히 회복되면서 차베스의 지지율이 다시 상승세를 보여 왔고, 이 것이 투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됨.

□ 차베스 대통령 국민소환 투표 실시까지의 경과

- 1992. 2. 4. 차베스 당시 공수부대 중령, 쿠데타 실패, 2년 수감

- 1998. 12. 6. 차베스, 빈곤층의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 당선

- 1999. 2. 2. 차베스 대통령 취임
 - 4. 25. 제헌의회 구성을 위한 국민투표 88% 찬성으로 통과
 - 7. 25. 제헌의회 선거에서 여당이 131석 중 123석을 석권
 - 8. 20. 판사 해고권 및 법원조사권을 제헌의회에 부여하는 사법비상령 선포, 세실리아 소사 당시 대법원장 사퇴
 - 8. 25. 기존 의회의 모든 활동을 중단시키는 입법비상령 선포
 - 12.15. 신헌법안 국민투표 71%의 찬성으로 통과, 신헌법 주요내용은 대통령 연임제, 단원제, 현직 대통령에 대한 소환투표, 국명 변경(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) 등임.

- 2000. 7.30. 신헌법에 따라 새로 실시된 대선에서 차베스 대통령 재당선. 의회선거에서는 여당연합이 165석 중 96석을 차지.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고, 여대야소 정국으로 전환
 - 8.19. 차베스 임기 6년의 재선 대통령으로 재취임
 - 11. 7. 대통령에게 경제, 사회분야 36개 법안에 대한 특별 입법권한을 부여한 수권법(Ley Habilitante) 제정
 - 12. 3. 노조개혁을 위해 노조 집행부의 퇴진을 묻는 국민투표 실시, 65%의 찬성으로 통과

- 2002. 4. 9. 노조 총파업이 차베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유혈시위로 발전되고 군부가 이에 가담함. 쿠데타 발생으로 차베스 대통령 퇴진, 12일 페드로 카르모나 상공인연합회(Fedecamara) 회장이 과도정부의 수반으로 취임
 - 4.14. 전국에서 20만 명의 차베스 지지자들이 대규모 항의시위를 벌이고 군부의 親차베스 세력이 과도정부에 반기를 들자 카르모나 임시 대통령이 사임하고, 차베스 대통령이 축출된 지 48시간 만에 권좌에 복귀
 - 12. 2. 석유노조 및 노총(CTV) 등 야권의 총파업 선언

- 2003. 2. 1. 파업철회, 63일간의 총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 50억 달러로 추산
- 2. 6. 외환통제 및 생필품에 대한 가격통제 실시
- 2.19. 정부와 야권 연합, 미주기구(OAS) 사무총장 세사르 가 비리아의 중재로 폭력사태 중단에 관한 협정 체결
- 11.28. 야권, 차베스 대통령 소환투표 실시를 위한 유권자 서명운동 실시
- 12.19. 야권, 소환투표 청원을 위한 유권자 서명서 제출
- 2004. 2. 25. 선관위, 소환투표 청원서의 서명자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결정
- 3. 2. 선관위, 야권 제출 소환투표 청원서 공식 인정
- 7. 8. 선관위, 8월 15일을 차베스 대통령 소환투표일로 결정
- 8. 15. 차베스 대통령 소환 국민투표 실시

□ 이후 전망: 차베스의 집권 강화와 국제유가 안정 회복

- 국민소환 투표가 부결됨에 따라 차베스 대통령은 2006년까지 남은 임기를 보장받게 되었고, 권력기반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평가됨.
- 단기적으로는 국민소환 투표 정국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국제유가 안정과 베네수엘라 국내경제 회복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.
 - 실제로 차베스 대통령 국민소환 투표 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유가도 하락세로 반전함. 16일 5시25분(한국시간) 현재 뉴욕상품거래소(NYMEX) 시간 외 전자거래에서 9월물 서부 텍사스 중질유(WTI) 선물 가격은 배럴당 39센트 하락한 46.30달러를 기록했으며, 같은 시간 런던시장 전자 장외거래에서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45센트 떨어진 43.43달러를 기록함.
- 베네수엘라 최대 석유회사인 페데베사(PdVSA)의 알리 로드리게즈 사장도 "국민투표 결과가 나온 후 국제유가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것"이라고 전망하였고,

- 석유 관련 애널리스트들도 세계 5위 산유국인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 차질 우려로 그간 유가가 급등했지만, 차베스가 승리함에 따라 유가가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음.
- 그러나 이번 국민소환 투표를 거치면서 차베스 반대파와 지지파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야권이 선거부정을 주장하고 있어 베네수엘라의 정국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
문의 : 책임연구원 김영석(☎3779-6653)

E-mail : claudio@koreaexim.go.kr